

'빛의 늪' 빠진 지역기업 방관해서는 안된다



데스크칼럼

최권범

경제부장 겸 뉴스콘텐츠부장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전남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기업부채는 전국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고금리 여파로 이자 부담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번 돈을 모두 쏟아부어도 은행 대출이자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기업부채 증가는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우려가 깊다.

최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이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기업부채 현황 및 특징' 보고서를 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22년 중 광주 중소기업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25.5%에 달했다. 광주지역 대기업 13.4%보다 두 배 가까이 웃도는 증가율이다. 부채규모도 지난해말 기준 16조 2000억원으로, 대기업 14조 700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전남의 중소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같은 기간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8.5%로 대기업 7.2%를 크게 상회했다. 부채규모 역시 지난해말 기준 11조 7000억원으로, 대기업 9조 8000억원보다 2조원 가까이 많았다. 그만큼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했음을 보여준다.

기업이 조달한 전체 자본 중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차입금 의존도는 광주와 전남 중소기업 각각 51.9%, 47.7%에 달했으며, 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도 가중되면서 지난해말 예금기관 대출 연체율은 광주 0.35%, 전남 0.30%로, 전년말 광주 0.34%, 전남 0.23%보다 상승했다.

가뜩이나 영세한 지역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지속된 경기불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역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이 치솟아 마진율이 감소하고, 내수와 수출 악화로 매출까지 급감해 더이상 버틸낼 재간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문제는 한 번 부채의 늪에 빠진 기업들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이자보상비율이 100%를 밑도는 취약기업 비중은 광주의 경우 2019년 38.6%에서 지난해 43.2%로, 전남은 31.4%에서 33.4%로 올랐다. 여기에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져 부실위험이 높은 한계기업(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비중도 광주 19.4%, 전남 15.1%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 급증했다. 이들 기업이 공장 사업장 문을 닫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열악한 경제구조 탓에 광주·전남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다. 지난해 기준 광주와 전남의 중소기업 수는 각각 694개,

574개로,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두 80%를 넘는다. 이처럼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늘어나는 빛은 지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지역내 일자리 약화는 물론 도미노처럼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까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게 지역경제의 현실이다.

결국 대응책 마련은 정부와 지자체, 유관기관 몫이다. 어떻게든 줄도산 사태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 당장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펴야 한다. 코로나 기간에 강화됐던 중소기업 지원책도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옥석 가리기 전제다.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자금난 해결을 위해 정책자금의 대출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도 필요하다. 금융권도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미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육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기업들 스스로도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뼈를 깎는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역기업 브랜드를 구매하는 등 지역민의 관심과 애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지금은 존폐 위기에 처한 지역기업을 살리는 게 우선이다. '역대급' 지역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한 지역 사회 모두의 협력이 절실한 때다.

社說

훼손 위기 신창동 유적 손 놓고 있을 텐가

고속도 확장 공사 우려 높아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공사로 광주 신창동 마한 유적지가 훼손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광주 신창동 유적은 세계 최대의 벼 생산 유적을 비롯해 각종 칠기와 현악기 등이 발굴된 몇 안되는 선사시대 유적이다. 면적이 넓고 좁고를 떠나 2000년 전 연산강변 고대사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신창동 유적의 가치와 중요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광주시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구간 확장 사업이 올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동광주 나들목에서 광산 나들목까지 11.2km 구간 왕복 4차선을 왕복 6~8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사구간에 신창동 마한유적지 1.85km가 포함돼 유적지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적지 내 확장 공사를 위한 문화재청의 심의도 이미 유적지 동쪽 방향 확장공사와 유적지 경관 회복을 위한 터널 등을 조건으로 '조

건부 가결'이 이뤄진 상황이다.

199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발굴이 시작된 신창동 유적은 우리나라 최초(最初)와 최고(最古), 최대(最大)를 자랑하는 유물이 쏟아진 선사시대의 보고다. 벼껍질 압착층 등 세계 최대의 벼 생산 유적을 비롯해 각종 칠기와 현악기, 신발을 만드는 틀인 신발골, 수레바퀴 등 선사시대 유적 2만여 점이 발굴됐다. 유적지 면적도 26만 715㎡에 달한다. 베틀에 사용된 바디나 복합 농경 유적 등 전문가들이 '국보급'이라고 극찬했던 유물도 다수 출토됐다. 그야말로 선사시대 광주 사람의 삶과 문화가 묻힌 타임머신인 셈이다.

유적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 광주시는 신창동 유적지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필요하다면 건설현장에서 발견된 '고대 무덤'을 지키기 위해 선형을 변경한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의 사례도 검토해야 한다.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유적지에 대한 추가 발굴도 시급하다. 신창동 유적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장애학생 방학돌봄 우리 모두의 문제다

안타까운 부모·교사 갈등

광주 '장애학생 방학학교' 운영 주체를 놓고 장애인 부모들과 특수교사 간 갈등이 해결될 기미가 안보인다. 장애인 학부모는 교육의 전문성 부족, 운영상 애로점 등을 들어 학교의 직접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특수교사들은 업무 과중이 심화되고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광주지역 장애학생은 5개 특수학교에 1090명, 280개 특수학급에 1408명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시각 장애 교육에 담당하는 세광학교를 제외하고는 이들에 대한 방학기간 돌봄교실은 운영되지 않았다. 처음엔 부모들이 나섰다. 광주장애부모연대는 지난 2010년부터 광주시교육청의 위탁 공모사업을 통해 장애학생 방학학교를 운영했다. 매년 200~300명의 장애학생이 이용하는 등 높은 수요를 보였다.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 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공간 활용이나 급식, 차량 운영 등에도 제약이 많았다. 이에 지난 2021년 부모연대는

시교육청에 특수학교 직접 운영을 요구했다.

교사들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특수교사들은 방학 동안 연수나 신학기 준비 등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방학학교를 직접 운영할 경우 이종교에 시달리게 돼 본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후 부모연대, 교원단체, 시교육청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가 10차례 이상 진행됐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두 단체가 보이는 갈등의 본질은 무엇일까. 장애학생의 '돌봄'이 교육의 영역이냐 아니냐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장애'는 사회의 복지 시스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청뿐 아니라 자치단체까지 나서야 하는 모두의 문제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적절한 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 이것은 나눠질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야 하는 일이다. 즉, 교육계와 지자체, 시민사회까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얘기다. 그것이 안되니 지금까지처럼 보듬어야 할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할퀴는 것이다. 언제까지 이를 두고만 볼 것인가 모두에게 묻고 싶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14일(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시위대가 최근 숨진 임산부의 사진을 들고 정부의 엄격한 낙태금지법에 항의하고 있다. 여성 인권 옹호자들은 폴란드 정부의 낙태금지법 강화 이후 최근 임신 5개월 차 여성이 패혈증으로 사망하자 "우리를 그만 죽이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폴란드 수십 개 도시에서 시위를 추구하고 나섰다. AP/뉴시스

서석대

광주에 얼마전 독특한 스포츠단이 탄생했다. 장애인들로 구성된 e스포츠단 '무등'이 그것이다.

지난 4월20일 제43회 장애인의날에 탄생한 '무등'은 전국 최초 장애인 e스포츠단이다. 무등 선수단은 광주장애인 e스포츠연맹으로 등록된 27명(지적·자폐·시각장애인)의 아마추어·준프로 선수들로 구성됐다. 감독은 유수일 광주장애인 e스포츠연맹 회장이 맡았다.

그리 한달 뒤인 지난 5월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열린 울산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여기서 서지원(광주시장애인체육회·초대부고)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했다. 창단 한달만의 일이었다. 서 선수는 e스포츠 분야 닌텐도 볼링 경기에 참여해 243점을 득점, 은메달과 단 1점 차로 3위에 랭크됐다. 이는 광주시장애인체육회 e스포츠 역사상 첫 공식 수상이다.

장애인들에게 e스포츠는 그야말로 신세계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싸우고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e스포츠를 즐기는 장애인들도 많다.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지역 대표로 대회 출전까지 하니 무등의 탄생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이미 타 지역에서도 무등을 모델로 장애인 e스포츠단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갈 길은 너무 멀다. 일단 현재 무등에 대한 금전적 외부 지원이 없다. 광주시 대표지만 체육회도 광주시도 광주정보진흥원도 재정지원은 하지 않는다. 그저 연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것이라면 대단하겠지만 무등 선수단이 먹고 이동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광주장애인 e스포츠연맹에서 부담하고 있다. 연맹 회장인 유 감독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 역시 넉넉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럼에도 지역의 장애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사재를 털어 선수단을 운영중이다. 선수들도 열심히 한다. 카트라이다·닌텐도 종목 이정은(13) 선수는 "하얀 무등 유니폼을 입고 할 수 있게 돼 너무 좋다"고 밝히고 선수단 주장을 맡게 된 허가진 선수는 "대회에서 무등 선수단 유니폼을 입고 입상해, 광주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전남일보가 e스포츠 취재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선수단까지 만들어지겠나 싶었다. 그런데 그냥 선수단도 아니고, 장애인 선수단이다. 이들의 부모들도 희망에 가득한 얼굴로 선수단을 바라본다. 그러니 이전 어쩔 수 없다. 그들에게서 국가대표가 나올때까지 전남일보도 그들의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전남일보 기자는 이들의 발자국을 쫓는다. 무등! 파이팅이다!

노병하는설위원 겸 사회부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